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icrostructure of Terminological Dictionaries

김 성 진(Sung-Jin Kim)**

정 동 열(Dong-Youl Jeong)***

목 차

- | | |
|---------------------|----------------------------|
| 1. 서론 | 4. 전문용어사전 미시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2. 전문용어사전 | 4. 1 현행 미시구조의 문제점 분석 |
| 2. 1 전문용어와 전문용어사전 | 4. 2 개선방안 |
| 2. 2 사전편찬학과 전문용어기술학 | 4. 2. 1 형태론적 측면 |
| 3. 전문용어사전의 구조 | 4. 2. 2 방법론적 측면 |
| 3. 1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 5. 결론 |
| 3. 2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 | |

초 록

학문의 발전으로 새로운 개념의 생성과 함께 전문용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집성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용어사전에서 전문용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뜻풀이를 위한 미시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문용어사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용어와 사전편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전문용어기술학의 특성 혹은 차이점을 살펴보고, 현행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형태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미시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S

As technical intellectual work now has become prolific and various, rapid evolution of technical terms needs to collect and manage them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icrostructure for systematic definitions of definiendum in terminological dictionaries.

This study reveals specific properties or differences of terminography on the basis of terminology and lexicography, analyzes problems of microstructure in a current terminological dictionary, and, based up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nalysis, attempts to derive structural and methodical suggestions for microstructure of terminological dictionaries.

키워드: 전문용어사전, 미시구조, 뜻풀이, 정의, 전문용어기술학

* 이 논문은 2001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sjin7611@hanmail.net)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Professor of the School of Social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접수일자 2001년 2월 19일

1. 서론

학문연구의 다양화와 세분화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학제간 교류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지식의 복잡한 환경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용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전문용어(terminology)는 1960년대 초에 2개 국어나 다국어를 사용하는 유럽, 북미, 일본 등의 국가들을 주축으로 번역과 문서화(documentation)와 같은 언어학적 측면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데이터 처리 분야, 전문용어기술 분야, 매스컴 관련 분야 등과 같이 다양한 응용 분야와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다.

이처럼 전문용어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전문용어를 체계적으로 집성하고, 기술하는 전문용어사전의 편찬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고 '전문용어기술학(terminography)'이라는 용어가 생성되기도 하였다. 전문용어사전이란 사회적으로 뚜렷한 집단들의 특수 언어 형성에 필요한 용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한 참조 체계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개념을 습득하고 이를 용어와 연관시키는 과정, 변화된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도울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교육, 학습 및 정보제공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사전은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로 구성되는 이중구조를 갖는데 이들 각 구조는 피정의항인 표제어의 언어적 성격과 사전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전문용어사전의 경우에는 언어학적 사항들보다 개념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일반사전과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문용어에 대한 연구가 뒤늦게 시작되어 전문용어사전에 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고, 사전의 미시구조(microstructure)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언어학 분야에서 언어사전을 중심으로 행해졌을 뿐 전문용어사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시구조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여 표준화된 전문용어사전을 구축하는 것은 이용자의 이해 및 접근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전자사전 형태의 변환, 전문분야 시소러스나 다른 응용사전으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용어와 전문용어사전, 사전편찬학과 전문용어기술학, 전문용어사전의 구조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토대로 전문용어사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다음, 국내의 현행 전문용어사전을 중심으로 미시구조를 분석하고 보다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전문용어사전에 대한 조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문헌정보학 용어사전』(한국도서관협회, 1996)을 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전문용어사전

2.1 전문용어와 전문용어사전

전문용어사전의 대상 어휘는 특정 전문분야의 전문용어이다. 전문용어사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문용어의 개념, 범위, 특성에 대한 우선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용어에 대응되는 영어는 「terminology」로 *The Oxford Companion to the English Language*

(1992)에 따르면 세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일반적 어휘(vocabulary)와는 다른 전문분야의 용어로서의 「전문용어」, 둘째로 전문용어의 형성, 사용, 체계화에 관한 연구를 칭하는 「전문용어학」, 마지막으로 전문가용 사전편찬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전문용어기술학」이다. 그런데 셋째 개념인 전문용어기술학은 전문용어사전 편찬에 대한 비중이 커짐과 동시에 「terminography」라는 별도의 용어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terminology」는 전문용어와 전문용어학의 두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전문용어의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전문용어와 일반어를 서로 상이한 집단으로 보는 '절대론'이고, 다른 하나는 관점에 따라 전문용어와 일반어를 구분하는 '상황론' 혹은 '상대론'이다. 전자는 전문용어 연구 초기에 등장한 입장이고 현재는 후자의 입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용어와 일반어를 절대적으로 대립된 집단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전문용어와 일반어의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柴田武(1989)이 일반어와 구별되는 전문용어의 11가지 언어학적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심적인 내용은 '특정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전문적 개념으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개념체계가 변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용어'로 요약할 수 있다. 송영빈(2000)은 柴田武가 제시한 특징을 보완 수정하여 전문용어의 전문용어학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반면 일본의 國立國語研究所(1981, 1-2)는 오히려 전문용어

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일반어의 개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상대론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전문용어사전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용어사전』(1996)에 등재되어 있는 「도서관」, 「컴퓨터」 등의 전문용어는 상황에 따라 일반어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용어 쪽에 근접했던 「전자우편(electronic mail)」이라는 용어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전자메일, e-mail 등의 형태로 일반화·대중화되었으며, 「검색(retrieval)」이라는 용어도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에서 검색엔진이 보편화됨으로서 일반인에게 더 이상 낯설거나 어려운 용어가 아니다.

전문용어의 보편적인 여러 특성 중에서 전문용어사전 편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용어는 명칭(name), 지시대상물(denoting objects), 개념지시자의 역할을 하는 기호(signs)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일반명사와 명사구, 그리고 개념적 내용이 명사화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일부 동사나 형용사만 해당되고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는 발음표시기호, 소유형용사, 시·공간 부사, 문법적 단어, 어의 변형어 등은 제외된다(Rey 1995, 29). 현재 전문용어를 집성해 놓은 사전이나 어휘집들은 모두 명사, 명사구만을 다루고 있으나 전문용어와 항상 함께 쓰이는 동사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전문용어에 용언을 등록하거나 혹은 전문용어에 연어(collocation)정보, 공기(co-occurrence)정보를 함께 기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도진희, 황도삼(2000)은 전문용어 동사 사전을 구축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둘째, 전문용어에는 하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구나 복합어, 합성어가 많다. 이는 전문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요소를 사용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비교적 다의성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藤原讓 1996). 이러한 복합어는 명사-명사의 단순한 결합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초미세 서로 작용」, 「보이지 않는 손」, 「디스크브레이크 잡소리」 등과 같이 조어규칙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구 단위 용어가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합어의 사전적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제어 선정 및 표기, 개념적 단위 분석, 조어법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전문용어는 학문적 변화에 의해 전문용어의 개념이 인위적으로 바뀌는 통시적 특성과 같은 시대 내에서도 전문분야에 따라 전문용어의 개념 정의가 다양한 공시적 특성을 모두 갖는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일반인들의 교육 수준 향상으로 「컴퓨터」, 「검색」이라는 전문용어의 개념이 일반화되고 대중화되었으며, 학문의 변화로 「목록」이라는 용어는 카드 목록에서 온라인 목록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고 동시에 카드 목록 개념은 거의 사장된 실정이다. 전문용어의 공시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영어의 「frequency」가 있는데 이는 통계 분야에서는 '도수'나 '빈도'의 개념으로 사용되나 기계·설비 분야에서는 '진동수', '주파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전문용어 사전 편찬의 입장에서 용어의 공시적 특성은 통시적 특성에 비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전문용어사전이란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집성한 것으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통합전문용어사전이나 일반대사전을 편찬하는 것이 아닌 한 분야별로 상이한 개념을 갖는 용어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용어의 통시적 특성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용어를 즉각 수용하고, 변화된 개념의 용어를 수정·갱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넷째, 전문용어의 통시적 특성과 관련하여 전문용어에는 신조어 생성이 많으며, 이러한 용어 생성 비율도 새로운 개념의 등장과 학문의 발달로 빠르게 진행된다. 또한 전문용어의 생성은 일차적 생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차적 생성으로 이어진다. 일차적 생성이란 과학적, 기술적 혁신이나 변화의 결과로 새롭게 형성된 개념을 명명하는 것으로 용어가 새로이 창조되는 과정이고, 이차적 생성이란 일차적 전문용어를 재조명한 결과나 지식과 개념의 전이로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겨났을 때 기존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용어를 부여하는 작업이다(Sager 1997). 전문용어의 이차적 생성은 일차적으로 형성된 외국어를 번역한 대역어, 음차어 등의 조어를 포함하므로 다중언어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의 전문용어를 사전적 처리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개념에 대한 여러 표기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용어의 빠른 시간적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사전이나 전자사전 구축 등의 시스템을 고안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전문용어를 대상 어휘로 하는 전문용어사전은 순수한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 언어계의 모든 어휘를 망라적으로 다루는 일반 언어사전과 그 특징, 구조, 깊이

등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2. 2 사전편찬학과 전문용어기술학

사전편찬학(lexicography)이란 사전 편찬을 중심으로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연구하는 학문 영역으로 넓은 의미에서 응용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한 언어의 어휘가 집대성된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한 권의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용어를 수집하고 용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의미를 기술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해줄 체계적인 구조의 구축 등 광범위한 과정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사전의 존재는 그 언어집단 구성원들에 의하여 그 언어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상당한 교육을 받은 언어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증거(이상섭 1990)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학문이 다양화, 세분화되고 상호연관되면서 전문용어의 중요성과 그 양은 점차 증대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용어사전의 편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전편찬학 영역에서 사전 구성의 어휘가 전문용어로 대체되었을 뿐이지만, 전문용어학이 독립된 학문분야로 부각되면서 전문용어학적 사전편찬도 응용 전문용어학의 한 분야로 활발히 연구되었고, 1977년에 처음으로 사전편찬학과 구분되어 '전문용어기술학(terminography)'이라는 별도의 용어가 Rey(1995)에 의해 제시되었다.

전문용어기술학과 사전편찬학은 용어를 수집하여 정리하며 어의론적으로 분석한다는 측면과 기술대상이 대체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용어기술학을 사전편찬학과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으로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전문용어기술학은 개념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기호(signs)로 표현한 전문용어에 대해 그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2차적으로 표현한 경우로(최석두 2000) 개념론적 혹은 명 의론적으로(onomasiologically) 진행되는 속성이 있는 반면, 사전편찬학은 이미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기호나 단어를 취하여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의미론적(semasiologically) 진행을 한다. 즉 전문용어기술학의 경우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활동이 갖는 명명 체계를 대상으로 그 명명 체계가 내포하는 개념 영역을 다루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어떤 것'에 대한 명칭은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어떤 것'이 이미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을 경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전문용어기술학은 이러한 개념을 명명하고 명명한 기호들을 다시 재 표현함으로써 참고체계의 역할을 한다.

둘째, 전문용어기술학은 전문용어사전 편찬 시 용어에 대한 뜻풀이 방법이 일반사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사전이란 대부분 언어사전의 일종으로 표제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이 강한 반면 전문용어사전은 표제어에 대한 개념 기술만을 주목적으로 한다. 전문용어사전의 경우에도 사전편찬 목적과 이용자 대상에 따라 사전의 규모나 범위가 자세한 설명이나 그림, 참고문헌 등을 제시하는 백과사전식 사전에서부터 용어의 집성만으로 이루어진 시소러스 같은 어휘목록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전문용어사전은 핵심적인 개념 설명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용어기술학은 사전편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발음, 문법, 용례, 관용표현 등의 항목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반사전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미시구조를 갖고 있다.

셋째, 전문용어기술학은 특정 이용자 집단을 목표로 하고 그들의 전문적이거나 특정 목적의 요구를 기반으로 전문용어사전을 편찬하기에 사전편찬학보다 이용자 중심적이다(Opitz 1983). 사전의 내용, 구조, 방법 등이 순수하게 언어학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의 집합인 전문용어를 다루고 있어 주제 전문화(subject specialization)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주제 전문화 정도와 방법이 전문용어사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전편찬 목적과 이용자층의 연구에 따라 배제(exclusiveness)와 포함(inclusiveness) 원칙을 균형있게 세우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용어기술학은 사전편찬학이 단어(words)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용어(terms)를 대상으로 한다. 용어란 어떤 주제 분야에서 하나의 특정한 개념을 표현하는 기호 체계로서 하나의 단어 혹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다. 전문용어 특성에서 살펴보면 전문용어에는 복합어가 많이 등장하며 「알파벳순주제배열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차저작물의 사용권」 등의 구 형태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문용어사전에는 이러한 용어의 처리 문제를 고심하여야 한다.

전문용어기술학과 사전편찬학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사전편찬학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언어의 발달에 기여해왔으므로 전문용어기술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전문용어기술학은 특정 용어에 대한 연구로 사전편찬학의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된다. 즉, 두 분야는 상호작용하며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3. 전문용어사전의 구조

3.1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사전은 하나의 표제어와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하나의 묶음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묶음들이 수없이 모여 하나의 사전을 형성하고 있는 이중 구조를 갖는다. 즉, 사전의 구조는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거시구조(macrostructure)란 사전에서 표제어와 이에 대한 뜻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사전이라는 전체 구조 하에 이 덩어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제어들의 총체이다. 반면 미시구조(microstructure)는 전체 사전 구조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표제어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표제어와 표제어에 대한 뜻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았을 때 이 덩어리 안에서 표제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정보들이 구성하고 있는 일관된 형식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거시구조 측면에서는 사전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표제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 다의어 및 동음이의어의 처리, 표기법 등을 연구한다. 그

리고 미시구조 측면에서는 표제어에 대한 뜻 풀이를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정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므로 발음부터 어원, 품사나 문법정보, 사용분야, 정의의 구성, 여러 가지 뜻의 규정, 용례, 기타 의미 관계, 통사론적 정보, 부차적인 형태론적 정보, 관용어구 제시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 모든 정보를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법까지 최종적으로 고려한다.

사전의 구조, 즉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사전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정보는 사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사전의 크기, 목적 등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어휘 연구와 사전편찬법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전의 구조는 사전마다, 그리고 같은 사전이라 할지라도 표제어의 특성에 따라 그 형식이 다르므로 모든 사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고도 방대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크게 구분되는 사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전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항목들을 형식화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 구조의 표준화 및 구조화 작업은 이용자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전자사전 구축도 용이하게 하고 다른 시스템으로의 활용도 가능하게 한다.

사전 항목들을 구조화하여 제시하고자 한 연구를 보면, Quillian(1968)은 노드와 개념으로 구성되는 의미망 구조를 이용하여 사전의 항목을 표현함으로써 추론 지식을 가진 사전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속성과 값을 갖는 프레임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하나의 표제어를 다섯 가지 속성, 즉 속(genus), 종(species;

sub-genus), 전문용어(scientific name), 종차(differentia), 첨부(incidental)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문용어사전의 항목을 제시한 Strehlow(1997)의 연구가 있다. 특히 Quillian의 시도는 인간 기억과 가장 유사한 연관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지식표현 방법과 추론 기능을 다루는 인공지능 분야에 큰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의 구조를 시스템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전자사전 구축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휘 구조를 서로 다른 부분들과 연결되는 관계 집합으로 보았으므로 상호관련되는 관련어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2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

전문용어사전의 구조는 일반 언어사전에 비해 언어학적 사항들을 중시하기 보다 표제어가 갖고 있는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기 때문에 구조적 측면, 특히 미시구조 측면에서 일반 사전과 다르다.

일반 언어사전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최병진 등(1996)은 국어사전에서 하나의 표제어에 대한 정보항목을 크게 표제어 형태에 관한 정보, 문법 정보, 의미 정보, 조어(파생어) 정보로 구분하고 이를 세분하여 미시구조 항목들을 『표제어, 표제어번호, 한자/로마자, 발음, 품사, 활용형, 어원, 전문어표시, 용법, 의미, 관련표제어, 관련표제어 관계, 수치, 주의, 용례, 출처, 속담, 관용어, 파생어』로 제시하였다. 또한 21세기 세종계획에서는 통합 전자사전을 구축 중에 있는데(홍재성 2000) 통합 전자사전 구축 전단계 작업으로 체언, 용언, 관용어

등의 분과별 사전을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각 분과별 사전의 구조 내에 포함되는 정보항목들은 매우 방대하며 체언 사전의 경우만 해도 매우 구체적인 정보항목들이 제시된다.

그러나 전문용어사전의 경우는 사전의 구조가 일반사전에 비해 매우 간결하다. 하나의 단어에 대한 모든 사항을 기술하기 보다 하나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전달하는 데에 그 뜻이 있으므로 발음·표기법 등의 표제어 형태 정보, 품사·활용형·구문정보 등의 문법 정보, 속담·관용어·용례 등의 통사론적 정보 등이 일반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이다. 전문용어사전의 정보항목들, 즉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강현화(1999)는 국어학적으로 전문용어사전에 관한 제안을 하면서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를 상위 영역과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정보 항목들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상위 영역에는 표제어에 대한 한자표기나 원어 표기가 포함되고, 하위 영역에는 약어,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관련어, 비 표준적 표현, 연어정보, 부표, 뜻풀이에 대한 참고, 용례, 뜻풀이에 대한 부가 설명이 포함된다. 도진희, 황도삼(2000)은 전문용어 동사 사전의 구축을 목적으로 동사 사전의 정보체계를 표제어정보, 의미정보, 형태정보, 통사정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비록 동사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항목들이지만 형태정보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전문용어사전에 응용할 수 있다. 표제어정보에는 표제어, 항목작성자, 표제어번호, 동음이의번호, 부엔트리번호, 작성일자, 항목수정일, 빈도정보, 외

래어표기, 대역정보, 출처, 분류, 음운정보, 전문어표시, 메모가 포함되고 의미정보에는 의미기술, 상의어, 유의어, 하의어, 반의어, 연상어, 혼용어, 시소러스, 의미분류, 속어정보가 포함되며 통사정보에는 공기부사, 문형, 문예, 슬어소, 의미소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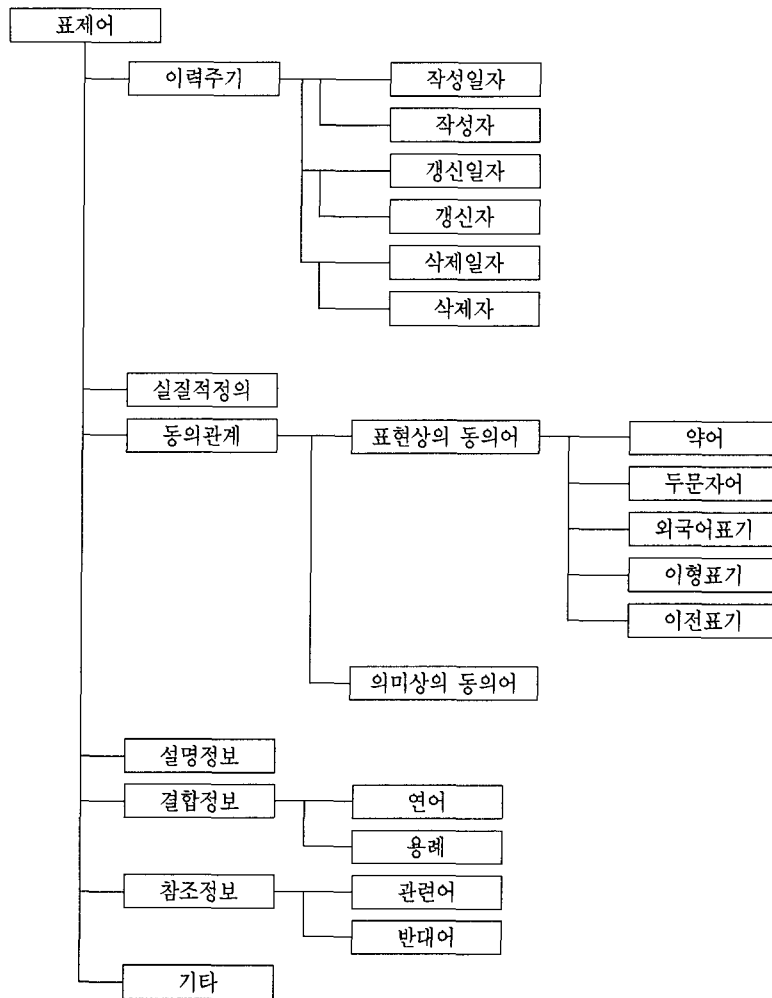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용어사전 특성에 맞는 미시구조의 정보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은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를 도시화한 것이다. 전문용어사전에서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는 사전기술에 대한 이력주기, 표제어에 대한 실질적 정의, 표제어와 동의관계에 있는 정보, 설명정보, 결합정보, 참조정보, 기타정보가 일관되게 기술되어야 한다. 전문용어사전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이러한 항목들이 모두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필요하다.

(1) 이력주기

이력주기는 표제어에 대한 항목들이 작성되거나 갱신 및 삭제된 일자와 담당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사전의 최종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않지만 사전의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

(2) 실질적 정의

실질적 정의는 「변별적 의미자질+상위어」의 형태로써 표제어의 개념을 가장 축약적이면서도 정확하게 기술한 하나의 문장이다. 상위어는 표제어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의 본질적인 바탕,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변별적 의미자질(semantic feature)은 상위어를 수식하는 관용어 형태로 존재함으로써 상위어에 속하는 같은 부류의 용어들 중에서 표제어



〈그림 1〉 전문용어사전 미시구조의 논리구조

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질적 정의는 분석적 정의(analytical definition),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 혹은 내포적 정의(intensional definition)라고 불리기도 한다.

(3) 동의관계

동의관계는 표제어와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들을 제시해주는 항목이다. 일부 언어

학자들은 하나의 어휘와 동일한 개념을 의미하는 완전한 동의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문용어의 경우에는 일반어에 비해 의미가 명확히 제한되어 있고 감정가치에 있어서도 중립적이므로 완전 교체 가능한 절대적 동의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임지룡 1992, 135-138).

여기서는 표제어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등가관계의 용어들을 동의관계로 보고 크게

표현상의 동의어와 의미상의 동의어로 구분하였다. 표현상의 동의어는 표기상으로는 다르지만 결국 해당 표제어를 가리키는 용어들을 기록하는 곳으로 약어, 두문자어, 원어, 이형표기, 이전표기가 기재된다. 이 중에서 이형표기는 외국에서 들어온 용어 하나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표기로 사용될 때 기재하는 곳이다. 이전표기는 하나의 개념이 여러 용어로 사용되다가 표준화된 경우 이전에 사용된 표기들을 기재하는 곳이다.

의미상의 동의어에는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들이 기록된다. 의미상의 동의어에 해당하는 용어들은 독립된 표제어 항목으로 사전에 등록되나 뜻풀이는 제공되지 않고 뜻풀이가 되어 있는 대표어로 참조 표시한다. 대표어의 선정은 해당 분야 자료에서 얻은 코퍼스를 통해 출현 빈도 수를 계산하여 빈도가 높은 용어를 택하는 방법이 있고, 가나다순 배열에서 가장 앞에 나타나는 용어를 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4) 설명정보

설명정보는 전문용어사전의 특성상 용어의 개념을 실질적 정의만으로 표현하기 부족한 경우나 용어와 관련된 역사, 이론, 이차적 문헌 등이 중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현재는 설명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 또한 전문용어의 분류 체계에 따라 적절한 설명 정보들을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합정보

결합정보는 표제어가 특정 어휘와 함께 쓰

이는 경우, 즉 연어(collocation)와 용례(usage)를 보이는 것으로써 모든 표제어에 대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현재까지 전문용어사전에서는 이러한 결합정보를 수록하지 않았으나 함께 쓰이는 용어나 관형어구 등의 연어정보의 제공은 전문용어의 이해와 쓰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용례는 일반사전에서와 같이 단어의 의미에 해당하는 예시를 일일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코퍼스의 분석을 통해서 참고할 만한 예시를 제공해야 한다.

(6) 참조정보

참조정보는 표제어와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거나 관련된 용어들을 제시하는 관련어 항목과 대립관계를 통해서 표제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해 줄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반대어 항목으로 구성된다.

참조정보에서는 용어들에 대한 뜻풀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에 등록된 용어들은 독립된 표제어 항목으로 선정되어 각 항목에서 뜻풀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용어간에 상호참조 표시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뜻풀이가 중복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줄 수 있는 혼돈을 막으며 사전편찬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이다.

(7) 기타

기타정보는 앞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이 새로이 첨부되어 기재될 수 있는 공간이다.

4. 전문용어사전 미시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현행 미시구조의 문제점 분석

『문헌정보학 용어사전』(1996)을 중심으로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측면이 제시되었다. 전문용어사전에서 표제어의 의미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미시 구조 항목들이 비구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정의 방식이나 상호참조 체계에서 모순된 부분이 많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의어를 설명하는 뜻풀이 구조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동의어뿐만 아니라 예시, 약어, 상위어 등의 항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조적 일관성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동의어의 예만 보이고 다음에서 상위어의 예를 보이기로 한다. 아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검사루프」의 경우에는 동의어를 먼저 제시하고 있고, 「간본」의 경우에는 정의를 제시한 후 동의어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개인(改印)」은 동의어만을 제시함으로써 단순대치형의 뜻풀이를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단순대치형 뜻풀이 방식은 상호참조와 혼돈되어 사용된다는 문제점을 함께 갖는다. 동의어 하나만 제시될 경우에는 '개인(改印)→개판(改版)'의 형식으로 참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루프 checking loop

에코 체크(반향검사)의 동의어. 전송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기법. 수신데이터를 송

신측에 반송하여 송신측에서 송신데이터와 반송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정확성을 검사하는 것.

간본(刊本)

목판본, 활자본, 석인본, 유인본 등과 같이 인쇄술을 써서 간행된 책의 총칭으로 인본, 인쇄본, 판본이라고도 한다.

개인(改印)

개판(改版)과 같은 말.

둘째, 실질적 정의 부분에서 상위어 제시 구조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어 개념 사전을 구축하고자 사전의 뜻풀이 정보를 이용한 김수정(1998)의 논문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는데 연구의 제한점으로 사전의 뜻풀이가 일관성 있는 상위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아래의 예에서 「연역적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사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전형적인 뜻풀이 방식으로 '변별적 의미자질+상위어' 형태이지만, 「경영정보시스템」의 경우는 상위어로 볼 수 있는 것이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시스템'으로 상이한 수준의 상위어가 두 개 언급되었다. (2)의 경우에는 '시스템'보다 구체적인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경영정보시스템」의 상위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러한 상위어 수준은 사전편찬시 사전의 편찬 목적과 의도, 이용자 수준에 따라 일관되게 정해져야 할 것이다.

(1) 연역적 데이터베이스 deductive database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소장되어 있는 사실에 다 규칙을 적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추론해 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2)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의 약칭.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하나. 기업 경영자나 관리자에게 기업 내부의 관리, 외부의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3) **연조활자**(連雕活字) 목활자에서 두 자 이상의 글자를 합쳐서 한 개의 활자로 조조(雕造)한 것.

(3)의 「연조활자」의 경우에는 상위어를 먼저 제시하고 피정의항의 의미 자질을 풀이한 경우인데 위에 제시된 뜻풀이만 대할 경우에는 상위어로 ‘목활자’를 꼽을 것이나 다음 (4)와 같은 뜻풀이를 함께 볼 경우에는 상위어 설정에 있어서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연조활자」의 상위어를 활자의 재료에 주안을 두어 ‘목활자’로 할 것인지, 활자 제조 방법에 더 비중을 두어 ‘연조활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만을 제시하여 뜻풀이할 경우에는 다른 한쪽으로는 상호참조나 부연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연조활자**(連字活字) 두 자 이상의 글자를 합쳐서 한 개의 활자로 조조(雕造) 또는 주조(鑄造)한 활자. 연속활자(連續活字)라고도 한다. 활자의 재료에 따라 나무로 만든 것은 연조활자(連雕活字), 금속으로 만든 것은 연조활자(連鑄活字)로 구분된다.

또한 표제어에 대한 정의가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단 전문용어사전 뿐만 아니라 일반사전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것’은 다음의 예와 같이 행위, 사물, 추상적 실체 등의 여러 가지 상위어를 내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위어 제시가 불가능하다.

결본보충 replacement copy

결본되었던 자료와 동일한 것을 보충 또는 복사하여 보충하는 것.

결호파일 incomplete file

신문, 잡지의 결호분을 합철한 것.

경영재량권 administrative discretion

기관 내의 간부나 감독자에게 책임 영역 내에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

셋째, 모순된 정의 방식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순된 정의란 편찬자가 표제어가 의미하는 개념과 상이한 정의를 내렸다가보다 미시구조, 혹은 정의항목의 일관된 구조적 원칙이 없는 관계로 정의항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편찬자에 의해 혼돈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표제어에 대한 실질적 정의는 변별적 의미자질과 상위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는 표제어와 정의된 상위어간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음 (1)의 예에서 ‘추상적 개념’은 「가설설정」의 상위어로 보기 힘들며 오히려 ‘추상적 개념’은 ‘가설’을 나타내는 상위어이고 이를 구축하는 행위가 「가설설정」과 대등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검색시스템」을 ‘행위’의 하위어로 보기는 힘들다.

(1) **가설설정** hypothetical construct

인간의 지능을 종합하여 이론의 유도 또는

실험에 이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추상적 개념.
 (2) 검색시스템 retrieval system
 필요한 정보를 입수(검색)할 때 이용하는 일련의 행위.

넷째, 순환된 정의 방식이 존재한다. 순환적 정의(circular definition)란 피정의항에 언급된 개념이 정의항 내에 다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정의항과 같은 동의어를 이용하여 정의한다고 하여 동의어적 정의(tautological definition)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찾은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건식복사 thermal process
 액체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문헌을 건식으로 복사하는 방법. 열에 반응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개정 revise; revised; revision
 원본에 개정을 가한 것.

연판 open matter
 조판의 활자 행간에 끼우는 연판.

다섯째, 하나의 용어에 대한 뜻풀이가 여러 곳에 중복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는 사전 편찬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이지 못하며 이용자의 개념 이해를 혼란되게 만들 수 있다.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개가제」와 관련된 용어로 「폐가제」, 「안전개가제」 등의 개념이 설명되고 있는데 동시에 「폐가제」, 「안전개가제」란 용어는 다시 별도의 표제어로 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두 곳의 뜻풀이는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긴 하나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안전개가제」의 경우에는 표제어로 제시된 항목에서 보다 자세한 정의가 이루어지지만 「폐가제」의 경우에는 표제어 항목보다 「개가제」 내의 참조 항목에서 자세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개가제 open stack system; open access system; open shelves system

이용자가 직접 서가에 접근하여 자료의 내용을 조사하고,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열람방식. 이에 비해 이용자가 서가에 접근할 수 없고, 목록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 직원으로부터 신청한 자료를 받는 방법을 폐가제(closed stack system)이라고 한다. …(중략)… 서가와 열람실을 분리해서, 서가의 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때는 직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안전 개가제(safeguard open access)라고 한다. …(생략).

안전개가제 safeguarded open access system
 서가와 열람공간을 분리시켜 놓고 이용자의 서가 접근은 직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식이나 서가에서 자료를 가지고 나올 때는 실내 열람이라 하더라도 직원에게 대출 수속을 밟는 열람 방식.

폐가제 closed access system
 일반 이용자들은 서가 또는 서고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방식.

여섯째, 상호참조 표시가 부정확하고 불확실하다. (1-a)와 (1-b)의 경우는 상호참조어가 정확하지 않게 제시된 예이다. 「대고객서비스」는 「공중봉사」로의 참조어를 제시하고 있지만

「공중봉사」에서는 「대고객서비스」에 대한 관련어 표시가 없다. 이는 「대고객서비스」로의 상호참조를 「대고객봉사」라는 용어와 혼동하여 부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공중봉사」의 동의어로 제시된 「대고객봉사」가 독립된 표제어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2-a)와 (2-b)의 경우는 상호참조어에 대해 양방향으로 참고 표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예이다. 「과제도서」의 경우에는 「지정도서」로의 상호참조를 지시하였지만 지정도서에서는 과제도서로의 참조표시가 없다.

(1-a) **공중봉사** public services

도서관직원과 이용자 사이에 정기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도서관활동이나 업무로서 대출업무, 정보서비스, 복사업무, 기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가 포함되며 직접 봉사, 독자봉사, 대고객봉사, 공공봉사라고도 한다.

(1-b) **대고객서비스** → 공중봉사

(2-a) **과제도서** → 지정도서

(2-b) **지정도서** reserve collection ; reserved book ; short loan collection

대학 또는 학교도서관에 있어서 학기별 강의에 필요한 도서를 교수 또는 교사가 선정하여 강의 진행에 따라 학생들에게 단시간 대출 또는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도서로서 일반도서와는 별도로 배가됨.

지금까지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 측면에서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았지만 이 외에도 통합시켜야 할 표제어들을 동음이의어 취급하여 분리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구별을 통한 표제어 설정 문제,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문용어라고 보기 어려운 「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고유명사」, 「일기」 등의 용어가 표제어화 된 표제어 선정 문제, 한정어로 「고전 古篆」, 「고전 classic」 등과 같이 한자와 영어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음이의어의 구별을 혼란스럽게 하는 비일관적인 한정어 사용 문제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새로운 전문용어의 도입과 개념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4. 2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에 관한 이론적 연구들과 현행 전문용어사전에 대한 사례조사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개선방안을 형태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형태론적 측면에서는 전문용어사전 미시구조의 논리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들로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미시구조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며,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전문용어사전의 편찬과 관련되어 미시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4. 2. 1 형태론적 측면

전문용어사전의 뜻풀이가 비구조적인 점은 전문용어사전 자체의 이용뿐만 아니라 전문용어사전의 무한한 활용과 발전을 방해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사전의 뜻풀이는 시소러스나 개념 사전, 또한 다른 사전을 구축하는데 있어

서 기초적인 참고자료로 이용되며, 전자사전으로의 구축을 통해 전문가시스템이나 지식관리시스템의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용어사전의 뜻풀이를 구조화하는 것, 즉 사전의 미시구조에 들어가는 정보항목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은 사전의 활용 및 이해 증진뿐만 아니라 전자사전으로의 구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사전의 미시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사전 항목들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이를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논리구조로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구조화 작업에서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는 것과 어떠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표준코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표준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앞의 <그림 1>에서 제시한 논리구조를 바탕으로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의 생성과 개념 변화가 빠른 전문용어사전에는 이력주기 사항이 기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출판된 전문용어사전에는 이력주기가 대부분 기록되지 않고 있다. 이력주기는 인쇄본 형태의 전문용어사전의 경우에서 '작성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으나 전자사전 형태로 구축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의 변경 및 갱신, 또는 새로 표준화된 용어의 등장으로 기존의 표제어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보는 표제어에 대한 의미변천 주기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질적 정의 부분에서 상위어의 제시는 어휘 분류 체계 연구를 응용함으로써 정의 방법의 정확성과 효율성, 체계성을 꾀해야 한다. 어휘 분류 체계는 수많은 어휘소들을 상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근거하여 적절히 구분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어휘소들을 식별하고자 하는 연구이다(김광해 1993, 107-109).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여러 분류 체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정의 부분에서 표제어의 개념이 포함되는 올바른 상위어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의미에 따른 분류 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어휘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한 뜻풀이는 우선 일정한 기준에 의한 분류 체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정의 방법에 체계성을 부여할 수 있고 해당 표제어가 속한 상위어를 쉽고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용어가 일반어에 비해 의미의 다양성이 비교적 적은 관계로 어휘 분류 체계 속에서 전문용어에 적합한 분류 체계를 쉽게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질적 정의 부분에서 상위어와 변별적 의미 자질을 구별하여 구조화한다. 즉, 실질적 정의 부분에서 상위어를 별도로 태깅한다. 어휘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뜻풀이한 전문용어사전에 이러한 작업을 추가하는 것은 이를 전자사전으로 구축하였을 경우 의미 분류를 이용한 재배열을 통해 개념 사전과 같은 '능동적 사전'으로의 활용을 실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상위어 정보를 다른 연구에 쉽게 응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한 상위어의 의미 분류를 나타내는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어휘 분류 체계와 사전을 통합한 시스템을 구

축할 수 있다.

넷째, 실질적 정의를 기술할 때에는 정의 표현에 주로 사용되던 '~를 의미하는 것', '~이다', '~을 말한다', '~을 말함', '~을 뜻한다', '~을 뜻함', '~로서' 등의 군더더기 표현은 생략한다. 간결한 표현은 정의항과 피정의항의 대치를 가능하게 하여 표제어에 대한 개념을 쉽고 빠르게 이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사전을 다른 지식기반시스템이나 번역시스템에 적용시킬 때 처리를 용이하게 한다.

다섯째, 표제어에 대한 설명정보의 내용을 체계화한다. 현재는 실질적 정의 이외에 해당 표제어와 관련된 개념, 역사, 대표적인 이론, 관련 문헌 등이 두서 없이 설명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방대한 종류의 항목이 기술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를 체계화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전문용어사전의 경우는 일반 언어사전에 비해 비교적 설명정보에 포함되는 내용이 일관될 수 있으므로 구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구' 의미 부류에 속하는 용어들은 그 용도를 설명한다든지, '절차'에 해당하는 용어들은 구체적인 절차를 풀이한다든지 해서 부가적인 해설을 구조화할 수 있다. 설명정보를 체계화하는 선행 작업으로 코퍼스과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용어의 여러 용례들과 쓰임을 분석하고 용어가 포함되는 의미 부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상호참조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사전의 일관성과 경제성을 도모해야 한다. 사전에서는 표제어의 개념 이해에 필요한 용어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표시해주고 있는데 한 표제어 아래에 있는 여러 항

목들 중 어떠한 항목에 상호참조를 부여하고 상호참조된 용어의 뜻풀이를 어디에서 하는지 등을 정함으로서 하나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중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의관계 중에서 의미상의 동의어와 참조정보에 기입된 용어들을 독립된 표제어로 존재하게 하고 이를 상호참조 연결하였다. 이때 의미상의 동의어는 표제어의 뜻풀이와 많은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독립된 표제어 하에서 뜻풀이를 하지 않고 대표어로의 참조표시만 하며, 참조정보에 기입된 용어들은 독립된 표제어 아래에서 뜻풀이를 제공한다.

4. 2. 2 방법론적 측면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 혹은 뜻풀이 구조가 일률적이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전문용어사전의 경우 일반 사전에 비해 뜻풀이 원칙과 같은 편찬 지침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De Bess(1997)가 언급한 사전편찬자의 노하우 부족, 전문용어사전 전통의 부족, 주제에 대한 불충분한 이론적 배경, 공식적 규칙과 협정의 부재와도 연관된다.

일반 사전은 대개 언어사전으로서 언어학자들, 즉, 사전편찬자(lexicographers)에 의해 편찬되며 엄격한 편찬 규칙 하에 진행된다. 사전편찬 작업에 있어 일반사전의 경우에는 방대한 범위의 어휘를 다루는 것이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진행되기 마련이므로 단어의 뜻풀이에 대한 체계성에 다소 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 전문용어사전을 일반 사전편찬자가 편찬할 경우에는 사전의 전문성이 떨어질 여지가 있는 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용어사전을 편찬할 경우에는 사전의 목적에 맞게 사전 편찬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데 소홀함으로써 사전의 고유한 기능을 저하시킬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전문용어사전의 편찬은 사전편찬자, 특히 전문용어사전편찬자(terminographers)와 주제분야 전문가의 상호협동이 필요한 작업이며, 전문용어사전 편찬과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사전편찬을 위해서는 용어 수집과 선정, 기술, 구축 등 일련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사전의 범위 및 용도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용어를 수록하고,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방대한 규모의 사전만이 결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Crystal(1986)은 언어적 다양성과 언어의 의미구조를 갖추면서 포괄적인 범위를 철저히 다루는 사전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특수한 상황과 사람들의 개별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정보만 선택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전의 취지와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이용자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결국 사전은 이용자의 어휘적 필요에 의해 편찬되며 이용자의 사용에 의해 비판되고 평가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황에서 사전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이용자의 요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전 이용자에 관한 연구는 Quirk(1974, 재인용)이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어떤 사전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의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사전의 이미지에 대

해 쓴 논문이고 이를 계기로 사전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용자 연구는 결국 사전의 정의수준, 관련참조 수준, 갱신 수준 등과 같이 사전 편찬 전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앞에서 제시한 전문용어사전의 구조 항목에는 시소러스나 어휘의미론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의 다양한 의미관계가 폭넓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선 시소러스나 분류어휘집 등에는 사전과 같은 뜻풀이가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어휘에서 연관지을 수 있는 의미장을 상하관계, 전체-부분관계, 연관관계, 공유관계 등으로 관련지어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함으로써 그 어휘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은 뜻풀이에서 표제어와 밀접하게 연관된 용어들이 언급되므로 복잡한 의미관계를 굳이 제시할 필요가 없다.

물론 표제어의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의미 관계의 어휘들은 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전의 주목적은 개념 설명으로써 시소러스와 같은 어휘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사전의 고유한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사전의 규모 또한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상의 문제는 전자사전의 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온라인 시소러스와의 링크를 통해 통합전문용어시스템을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합전문용어시스템은 해당 표제어가 속해 있는 시소러스 체계를 참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앞에서 언급한 어휘분류체계의 적용으로 개념이나 의미 분류로의 접근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전문용어사전이나 통합시스템은 텍스트 사전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정보의 불연속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전문용어사전 미시구조의 체계화를 위하여 전문용어와 전문용어사전, 그리고 사전편찬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전문용어사전의 구조에서 전문용어사전 미시구조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 지식 분야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학문이 생겨남에 따라 전문용어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학제간 연관성으로 인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전문용어의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전문용어기술학이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는 일반사전과는 다른 전문용어사전의 특징 때문에 사전편찬학과 구분되어 진행된다.

전문용어사전은 첫째,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는 일반사전과는 달리 개념적 혹은 명의적으로 접근하며, 둘째, 표제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보다 핵심적인 개념 설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사전과 뜻풀이 방식이 다르다. 셋째, 보다 이용자 중심적이며 주제 영역이 전문화되어 있고, 넷째, 단어가 아닌 용어를 대상으로 한다. 용어는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단어로도 구성되며

로 전문용어사전에서는 이러한 복합어를 처리해야 한다. 그밖에 전문용어사전은 명사, 명사구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빠른 신조어 생성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용어사전의 구조는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이중구조를 갖는다. 거시구조는 나름대로 일정하고 관계적인 방식에 의해 배열되어 있는 표제어들의 총체이고, 미시구조는 각 표제어 아래 표제어의 개념을 설명하기 나열되어 있는 정보들의 집합이다. 사전의 규모가 사전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상이 하듯이 전문용어사전도 일반 언어사전과는 달리 용어와 관련된 언어학적 사항들보다 개념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표제어 아래 기술되는 정보항목이 다르다. 또한 이러한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는 일반사전보다 간결하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형식화한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에는 작성·갱신·삭제에 대한 이력주기, 실질적 정의, 약어·두문자어·외국어 표기·이형표기·이전표기 등의 표현상의 동의어, 의미상의 동의어, 설명정보, 연어·용례 등의 결합정보, 관련어·반대어 등의 참조정보, 그리고 기타정보가 포함된다.

현행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정보항목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게 제시되고 있다. 둘째, 모순된 정의, 순환적 정의, 중복된 정의 방식이 존재한다. 셋째, 상호참조 표시가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표제어 설정이 부적절하거나 표제어 선정에 있어서 부정확하며, 한정어가 비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형태론

적 측면에서는 첫째, 이력주기를 기입함으로써 용어에 대한 또 다른 정보자원으로 활용한다. 둘째, 실질적 정의에서 어휘 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상위어를 제시하고 셋째, 상위어와 변별적인 의미자질을 구별하여 구조화함으로써 상위어를 재응용 한다. 넷째, 설명정보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체계화한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첫째, 전문가, 사전편찬자의 협력으로 전문용어사전 뜻풀이를 위한 규정 및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사전 이용자에 대한

연구를 사전편찬 작업의 기본 작업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 시소러스와 전자전문용어사전의 연계를 통해 통합전문용어시스템의 구축을 시도한다.

이 외에도 전문용어사전과 관련하여 미시구조 측면에 국한하지 않은 폭넓은 이론적·실제적인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모든 사전 형식을 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통합 코드의 구축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현화. 1999. 전문용어 사전에 대한 국어학적 제안-무역·경제 용어를 중심으로-. 『언어정보의 탐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김광해. 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 김수정. 1998. 한국어 개념 사전의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도진희, 황도삼. 2000. 전문용어 동사 사전 구축. 『제3회 전문용어언어공학 심포지엄-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대전: KORTERM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34-37.
- 사공철 등편. 1996.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송영빈. 2000. 전문용어학의 제문제. 『전문용어연구1 - 한국에 있어서의 전문용어 연구와 방향 -』, 최기선, 송영빈 편. 대전: KORTERM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13-36.
- 이상섭. 1990. 현대사전편찬학의 이론과 실제. 『사전편찬학연구』, 3: 77-117.
- 임지룡. 1992. 『국어 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최병진, 이윤재, 이재성, 최기선. 1996. 기계가독형 사전 구축을 위한 사전항목의 논리구조. 『인지과학』, 7(2): 75-94.
- 최석두. 2000. 전문용어학의 내용과 과제. 『지식처리연구』, 1(1): 61-75.
- 홍재성. 2000.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분과-2000년도 연구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 國立國語研究所. 1981. 『專門語の諸問題』, 國立國語研究所 報告 68. 秀英出版 1-9.
- 藤原讓. 1996. 情報學基礎から見た専門用語. 『専門用語研究』, 12: 22.
- 柴田武. 1989. 日常言語と専門用語. 『日本語學』, 8(4). 재인용: 송영빈. 2000.
- Crystal, David. 1986. "The ideal dictionary,

- lexicographer and user." in *Lexicography: An Emerging International Profession*, edited by Robert Ilson, 72-81.
- De Bess, Bruno. 1997. "Terminological definitions," translated by Juan C. Sager, in *Ha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vol. 1, edited by Sue Ellen Wright and Gerhard Budin, 63-74.
- Opitz, K. 1983. "The terminological/standardized dictionary: special purpose lexicography: dictionaries for technical use," in *Lexicography: Principles and Practice*, edited by R.R.K. Hartmann, London: Academic Press, 163-180.
- Quillian, M. Ross. 1968. "Semantic memory," in *Semantic Information Processing*, edited by M. Minsky, Cambridge, MA: MIT Press, 227-270.
- Quirk, R. 1974. "The image of the dictionary," in *The Linguist and the English Language*, London: Arnold, 148-163. 재인용.
- Hartmann, R. R. K. 1983. "On theory and practice: theory and practice in dictionary-making," in *Lexicography: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Academic Press, 3-11.
- Rey, Alain. 1995. *Essays on Terminology*. Amsterdam: John Benjamins Pub.
- Sager, Juan, C. 1997. "Term formation," in *Ha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vol. 1, edited by Sue Ellen Wright and Gerhard Budin, 25-41.
- Strehlow, Richard A. "Frames and the display of definitions," in *Ha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vol. 1, edited by Sue Ellen Wright and Gerhard Budin, 75-79.